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지원 강화

중기중앙회, 오늘부터 공제기금 신용대출 금리 최대 0.30%p 인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 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0%p 인하된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8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낮아지며, 내수부진 등으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0%p 인하해 5.20%의 금리로 시행된다.

대출이자 1~2%p를 지원하는 지자체 이자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제부금(3년~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

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래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2024년 한 해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제4회 전기안전 국민공모전에서 △전기시설물별 안전등급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어린이 전기안전탐험대 캠페인이 각각 대상(장관상)을 받았다.

대상, 안전등급지정·전기안전 탐험대

전기안전공사 국민공모전, 정책제안·실천방안 2개 부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주관 제4회 전기안전 국민공모전에서 △전기시설물별 안전등급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어린이 전기안전탐험대 캠페인이 각각 대상(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완주군 본사에서 제4회 전기안전국민공모전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정책과 제도개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월부터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부문의 공모를 진행해 25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심

사를 거쳐 부문별 4편씩 총 8편이 본선에 올랐다. PT 발표형식으로 진행된 본선에서는 현장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전기안전 열린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전기시설물별 안전등급지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부문에서는 '어린이 전기안전 탐험대 캠페인 추진'이 각각 산업부 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황호준 부사장은 "전기안전 정책이 과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각과 제안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 준공... 신도시로 탄생 예정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6월 말 준공됐다. 총 면적 약 29만㎡(약 9만평) 규모의 이 사업은 익산시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완공 후 약 4,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탄생할 예정이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해 개발이익 등을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 도시 개발구역 지정 후 2021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 사업비 약 688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익산시의 전북개발공간 협력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2022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주거·상업·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으로 공급된다.

부송4지구 개발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보상 문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으나, 익산시의 전북개발공사는 주민설명회와 협의제 운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익산시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익산 부송4지구가 쾌적한 신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0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총 1121억원 지원... 지원 종료 후 91% 계속 납부, 노후소득 보장 효과 높아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대구 거주 김모 씨(61)는 공단으로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지원을 신청했다.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은 김 씨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하여 현재는 매월 43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박약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지원된 누적 보험료는 총 1,121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

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재산이 8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개별 안내 강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제도 초연도인 2022년 3만8,000명에 불과했던 연간 지원 인원이 2024년에는 20만14,000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

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또한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 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은, 여름한정 'JB SUMM3R 특판 예금' 출시

2000억 한정판매, 최대 연 2.65% 금리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7월 1일부터 여름 한정으로 'JB SUMM3R(썸머)' 정기 예금 특판을 출시한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판 예금은 계약기간 3개월로 계약당 1백만원, 고객당 최고 20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65%(기본금리 연 2.35%)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예금가입 전 6개월 내

전북은행 원화정기예금 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0.10%, 전북은행 입출금계좌를 계좌번호 외 임의의 번호로 설정하는 '내 맘대로 계좌번호 지정서비스' 신청 시 0.10% 마케팅 동의 시 0.10% 등 최고 0.30%를 제공한다. 단, 마케팅 동의가 불가한 법인은 0.10% 우대금리를 자동 제공한다.

이번 특판은 2천억원 한정판매로 오는 8월 31일까지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간편한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여름 한정으로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리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LG전자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

전기안전공사,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서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최근 전북 김제시 LG 스마트코티지 오픈하우스에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와 모듈러 주택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형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고 △모듈러 주택 전기설비 안전기준의 공동개발 △전기안전 인증 체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LG전자의 차세대 모듈러 주택 플랫폼인 '스마트코티지'에 전기안전 공사의 인증 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인증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기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래 주거 트렌드에 걸맞는 안전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주택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